



올해의 건축가 100인 국제전

2018 올해의 건축가 100인 국제전 | 100 ARCHITECTS OF THE YEAR 2018

세계 건축의 흐름 안에서 꼭 넓은 교류를 통해 한국 건축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자, 기존 (대한민국 건축대전 초대작가전)의 30년 전통을 이어, 2012년부터 세계 최초로 UIA(국제건축가연맹) 공인을 받은 국제 초대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한국건축가협회와 UIA(국제건축가연맹)가 함께 하는 <올해의 건축가 100인 국제전>은 현대 건축의 흐름과 전 세계 건축가의 활약을 한 곳에서 확인하고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이자 건축 문화를 대중과 공유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주최 : 한국건축가협회, UIA(국제건축가연맹)

주관 : 한국건축가협회 국제위원회

커미셔너 : 송규만(위원장), 고성석, 김석기, 조소은

100인 국제전 참여 건축가

Youngwoo Kim / Seungbom Roh / Jonghoon Shin / Haven Shane Knight / Marcelo Daglio / Youngsun Ko / Seonghyeok Bae / John Marx / Eliza bethChurRichter+DavidRichter / Martin Boga + Gustavo Vera Ocampo / Youngran Kang + Youngmi Park / Sanghoon Lee / Jtaek Lim / Dongwoo Yim / GuillermoProbst+LuisZino / YoungkyoonJeong / Rodolphe Luscher / JeukKim / Dongjin Kim / Fabio Ayerra + Marcos Castalings + Martin Cobas + Javier Lanza + Diego Pérez / Youngkeun Kwon / Oscar Kang / Jeonghyun Kim / Donghoon Kim / Maria Inés García + Maximiliano García / Younghun Kim / Norzaini Mufti / Jeongho Seok + Sunyoung Lee / DokwonPark / Diego Arraigada / Yongwook Cha / Myunghyup Park / Jeeyong An / Daniel Keunwoo Cheon / Pedro Livni / Yongssoon Chang / Minjin Park / JaideukYu+JunChoi / Claudia Ricciardi + Marco Tanzilli / Leonardo Elizalde / YongseokJohn / Minho Kyung / Jaeyoung Kim / Chungwhan Park / Alejandro Dibarboure + Ingrid Grauerth + Inés Llorente + Virginia Ruiz / Wooseok Choi / Lu Zhong Xiao / JaeyongChung / Chungkee Lee / Marcio Kogan + Suzana Glogowski + Diana Radomysler / Woonsik Jung / Loke Mun Tan / Jaesoon Synn + Jungun Park / ChezinLim / Carlos Pascual / Wonshok Lee / Levente Szabó / Jaemin Yoon / Anna Selina Anttinen / Álvaro Moreno / WonJea Lee / Lawrence Kim / Jaehee Chung / Alexandre Costa Lopes + António Costa Lopes / RaúlLeymonie+PedroBerger / Tony Woonghee Cho / KyuyoungSim / Ibrahim M Jaidah / Marcelo Gualano + Martin Gualano / Martin Pronczuk + Santiago Saettone / Tomohiko Yamanashi / KyuseonHong+SunJaeYi / Hyunmin Park / Gustavo Scheps / Víctor Lorieto + Conrado Pintos + Luis Santellán / Tatsuya Hatori / Kyungtaek Park / Hyunjun Mihn / Iván Arcos / Cecilia Cuadro + Alicia Dauria + Andrea Gnesetti + Verónica Musto / Taesung Kim / Kyungsun Lee / Hyunho Lee / Inés Artecona + Hugo Dutiné + Gabriel Falkenstein / Juan Carlos Apolo / Taeik Kim / Kyuman Park / HunYang / Francesco Commerci / UlisesTorrado+MarceloBednarik+AlejandroBruzzone +FedericoMirabal / SunyoungRieh+AOC / KiseokKim+GeukraeJo / Hoang Thuc Hao / Martín Gómez Platero / Thomas Sprechmann + Marcelo Danza / Sungik Cho / Juwon Kim / Hiroshi Miyakawa / Saturnino Armendares + Pablo Ferreira + Joaquín Leunda + Andrés Gómez / Álvaro Farina / Soyoung Kim / Junghee Lee / HeoungraeRoh / Juan Ferrer + Lucía Preve / Matias Carballal + Andrés Gobba + Mauricio López + Silvio Lagranha + Luciano Andrades / SooranKim / Juho Seo / Heejae Choi + Minchang Park / Andrés Cotignola + Marcelo Staricco + Carolina Tobler / Alberto Gaez + Armando Núñez / Soonku Kong / JoongwonLee+KyungaLee / HeecheolBou+YikwonKoh / Mariana Cecilio / Leonardo García Dovat + Federico Gastambide + Eduardo Laurito / SeunghyunWoo / Jongyup Lim / Heakyung Yoon / Daniella Urrutia

2018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한국건축가협회가 우리의 일상생활 공간을 사람과 문화가 주인이 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을 제정하였다. 이를담고 제작하며 편리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일상생활 속의 공간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주인과 더불어 창출하고, 개선한 사업을 발굴하여 이를 격려하고 널리 알리고자 제정한 본 상은 인간성을 회복하고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고려된 문화공간 조성에 기여한 지자체, 법인, 시민단체 및 개인에 대한 시상, 홍보를 통해 국민의 공간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임으로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 한국건축가협회

심사위원 : 최성호, 고성천, 우신구, 이옥하, 채민규

대상 / 대통령상  
작품명 : 낙산과 동망봉을 품고 흐르는  
행복마을 찬신승인  
수상자 : 서울특별시

최우수상 / 국무총리상  
작품명 : F1963 복합문화공간  
수상자 : 부산광역시

우수상 / 거리미대상  
작품명 : KB엑스타 청춘마루  
수상자 : KB국민은행

우수상 / 누리원대상  
작품명 : 태화강 지방정원  
수상자 : 울산광역시

우수상 / 우리사랑상  
작품명 : 전통한옥 문화시설「상촌재」  
수상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젊은건축가전

젊은 건축가 선정 및 육성 사업은 2008년 '젊은 건축가상'을 제정하고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젊은 건축가들을 발굴하고 홍보함으로써 우리나라 건축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제도는 프랑스 정부가 2002년에 시작한 Les Nouveaux Albums des jeunes Architectes et des Paysagistes(새롭게 선정되는 젊은 건축가, 조정설계자 앨범)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 45세 이하의 국내·외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한 건축가를 대상으로 작품에 드러난 잠재적 역량, 작품의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공개심사를 거쳐, 최종 3팀 내외의 건축가를 선정, 시상한다. 그리고 작품 전시회 개최와 작품집 발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내·외 홍보를 지원한다.

젊은건축가상 공모는 매년 지원자가 늘고 있으며 참여한 건축가들의 작품은 작업의 결과물로 다양하고 완성도 또한 매우 높아지고 있어 언론계에도 상당히 많이 소개되어 권위 있는 상으로 정착되었다. 젊은건축가상을 통해 좋은 건축가들이 등장하고 앞으로의 더 많은 가능성은 곧 치열한 경쟁이라는 양면성으로 인식되지만, 그럼에도 젊은 건축가들로부터 각자의 위치에서 시대를 바라보는 도시 건축적 '가치관'에 대한 고민과 그 '실현'이 건축의 영역 그 이상의 범위에서까지 날카로운 질문들로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이에 올해로 11회를 맞이하는 '젊은건축가상'은 건축가들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공론의 장이자 동시에 이들 건축과 도시에 대한 답론으로 확장하고, 또한 동시대의 건축 문화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기록이자 가능성의 플랫폼 역할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 새건축사회의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어성건축가협회

심사위원 : 김준성, 최문규, 장윤규, 최훈용, 이은경

2018 젊은 건축가상 수상자

- 문주호(34세), 임지환(34세), 조성현(36세) : (주)경계없는작업실 건축사무소



- 김이홍(38세): 김이홍 아키텍츠,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교수



- 남정민(41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2018 지역건축가전 BEST 3

건축은 지역의 문화와 삶을 담는다. 그러기에 건축은 지역의 특색을 공간과 형태, 재료의 특색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지역성을 갖춘 독특한 아이디어를 발휘하기도 한다. 지역 건축은 또한 그 지역의 도시 맥락적 특성을 반영하기도 하고, 지역의 삶과 문화 등을 프로그램과 컨셉으로 반영하는 등 지역 도시경관과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 지역 건축을 선도하는 (사)한국건축가협회는 경기, 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 부산, 울산, 전북, 제주, 충청, 충북 건축가회 등 10개의 지역 건축가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건축가회는 각 지역의 건축 문화 창달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건축가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 지역건축가전 BEST 3"은 이러한 지역건축가회의 대표적 완공작품들을 소개함으로써 각 지역 건축가들의 디자인 역량과 이들의 보편타당성과 특수성을 갖춘 건축미학을 홍보하고, 지역 건축이 추구해야 할 공공성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고찰하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 전시 작품은 2013년 1월 1일부터 ~ 2018년 7월까지의 준공작품 중 각 지역건축가회 선정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작 3점이다.

경기

김재경 / (주)건축사사무소 다보건축  
Open the Frame(관악동 행정복지센터)  
신동규, 김남현, 김승 /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SJ 도시건축 스튜디오  
남원 엠티솔이아기원 사랑채원관  
오정준 / (주)엔비퍼먼지너버링 종합건축사무소  
포천 청소년문화의 집

경남

송인국 / 건축사무소 사람인  
신성문환원  
조한재 / 다함건축사무소  
(놀다) 김해 관동동 단독주택  
권명규 / A틀건축사무소  
THE BOX

대구, 경북

석강희 / 경일대학교 건축학과  
'커 와 걸'의 건축 - 희을 일본군위안부역사관  
이한호 / (주)에이유 종합건축사무소  
창풍각  
조영래 / (주)건축사무소 원형건축  
경문대학교 벽간지센터

대전

이경환 / (주)디엔비건축사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조도연 / (주)디엔비건축사무소  
대전국제컨벤션센터  
이재호 / (주)연양기술공사건축사무소  
조한욱 / 건축사무소 YEHA  
죽동 단독주택

부산

오진욱 / 건축사무소 라움  
일광 유원스  
조정호 / 건축사무소 이익  
뷰박스  
이원영 / 건축사무소 매종  
청(靑), 사랑채

주제기획전 : 루로시오 해류, 동아시아 해양 건축 실크로드

주제기획전은 '多影島市'라는 주제를 부각시키면서 제주건축의 지역성을 표출하고 자 하며, 제주를 꼭 넓은 시각으로 재조명해 보고자 기획된 전시이다. '루로시오 해류 : 동아시아 해양 건축 실크로드'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루로시오 해류를 통해서 과거에 해양 교류가 활발했던 제주를 둘러싸고 있는 섬들을 네트워킹 하여 제주와 그 지역의 인문, 도시경관, 건축 등을 고찰하고 제주를 성찰하는 전시를 기획하였다. 대상지역은 제주, 큐슈(나가사키, 가고시마), 오키나와, 타이완(이란, 타이둥) 4개 지역으로 정하여 이 지역들을 조사하고, 방문답사, 지역건축가 인터뷰, 건축 및 도시경관 촬영을 통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각 지역의 인문, 도시경관, 건축을 통한 문화를 교류하고 이를 전시한다. 4개 섬이 해양문화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찾아 나선 이번 주제기획전은 답사와 교류를 통하여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사람 중심의 공간과 장소를 만들어가는 건축가들의 모습에 감동이 되었고, 신 루로시오 해류! 해양건축 네트워크가 시작된 것이다.



제주의 도시경관과 건축



오키나와의 도시경관과 건축

타이완의 도시경관과 건축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아카이브전

공간문화대상 아카이브전은 요즘 화두가 된 도시재생과 관련이 깊다. 전시장소인 제주 원도심 '갤러리 이아'가 바로 도시재생 된 건축이다. 구 제주 대학 병원에서 문화 공간으로 재생되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공간문화대상은 각 지자체마다 그 지역에 적합한 공간을 만들고, 재생하여 대한민국을 문화가 풍성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발맞추어 제주의 도시재생 공간에 10여 년간 축적된 공간문화대상의 주목작은 작품들을 다시 전시하여 그 취지를 다시 돌아보고, 제주 원도심 재생에 이바지 하고자 기획된 전시이다.

제주건축의 흐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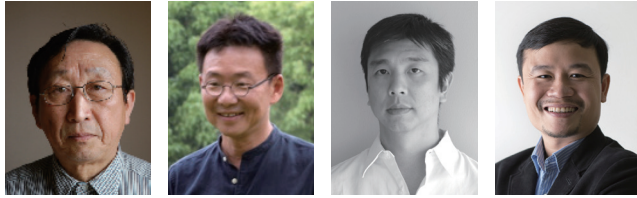
주제기획전 외에 제주의 건축이나 제주의 건축가를 알리는 전시의 필요성에 따라서 '제주건축의 흐름'이라는 제목으로 제주건축의 전통, 근대, 현대건축을 시대별로 간략히 소개하는 전시를 마련하였다. 특히, 현대건축 부분은 제주에서 활동하는 건축가의 작품들로부터 구성하여 동시대의 제주 건축의 흐름을 보는 전시가 될 것이다.

세미나

국제 컨퍼런스 "다채도시와 지역성"

2018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산업과 관광 등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에 주목하여 지역성을 재분하고자 한다. 대한, 태국, 베트남 이들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 변화 속에 그 곳의 지역건축가들이 추구해온 지역성 담론을 통해 건축의 지역성, 통토성에 대한 생각과 경험적, 실험적 작업들의 가치를 공유하고 나아가 제주건축 지역성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요구에 대하여 고민해 보고자 한다.

일시 : 2018년 10월 13일 토요일 10:00~18:00 / 장소 : 제주도립미술관 강당  
기조연설 : 송호성(이로재 대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강연자 : 김석윤((건축사사무소 김건록 대표, 한국건축가협회 명예이사))  
Huang, Sheng-Yuan(黃聲遠, Taiwan) / Chatpong Chuenrudeemol(Tailand) / Vo Trong Nghia(Vietnam)



건축기술심세미나 : 건축기술, 트렌드 그리고 패러다임

일시 : 2018년 10월 12일(금) 오후 10시 30분 / 장소 : 제주도립미술관 세미나실  
주제 : 건축기술, 트렌드 그리고 패러다임  
주관 : (사)한국건축가협회 건축기술심사위원회  
후원 : (주)경동원, (주)센피크, (주)토론건축사무소, (주)한양방수

주제발표

- 건설산업환경 변화의 이해와 한국형 프리패브건축의 적용사례 - C.F.S(생강성형강) 프리패브를 중심으로. / 천상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 테마파크(Theme park, Water park) 공법의 이해 - 제주신화월드 사례를 중심으로 / 이철호 | 현대건설 부장
- 건축의 패러다임 수해양건축 / 윤창기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경암 대표

도시재생세미나 : 깨우는 건축, 살아난 도시 Prologue

일시 : 2018년 10월 12일(금) 오후 1시 / 장소 : 제주도립미술관 세미나실  
주관 : 한국건축가협회 도시재생위원회  
후원 : KB엑스타 청춘마루, (주)공간건축사사무소, (주)SAK건축사무소, (주)현대건설, (주)유니크스튜디오, C & C Lightway

주제발표

- 도매 재부 건물 담색 / 김선아 | (주)SAK건축사무소 대표
- 토론 최순석(한국교통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김선아((주)SAK건축사무소 대표), 한은우(주)소프트이키텍처법 대표), 김종대(디자인연구소 이선 대표), 나현희((주)일플래닛건축사무소 대표), 황준호((주)공간건축사사무소 이사)

젊은건축가 아젠다 회의 : 대한민국 건축을 말한다, 건축가의 평균

일시 : 2018년 10월 11일(목) 오후 4시 / 장소 : 제주도립미술관 세미나실  
주관 : 한국건축가협회 젊은건축가위원회  
후원 : Sunpark  
발제 : 김형래 대표 | 에이플래폼

시민체험

어린이 건축학교 "무인도에서 집짓고 살아남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제시된 기구에 적합하도록 임시 주거를 만들어보는 디자인 게임 건축교육 프로그램이다.

일시 : 2018년 10월 7일(일) 13:00~18:00  
장소 : 제주도립미술관 시민갤러리  
총괄큐레이 : 김정일(건축사사무소 지맥 대표)  
프로그램 : 이윤규(제주대학교 건축학전공 교수)  
심사: 지정우·서민우(EUS+이유에스 플러스 건축 대표)



건축문화답사 : 함께하는 다채로운 제주건축문화기행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다양한 건축물을 답사하는 동안 제주의 인문·자연 환경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양한 건축 자원을 각기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느끼고자 4차례의 다른 성격의 대상으로 다른 코스의 답사를 진행하여 보다 다채로운 제주건축문화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일시 :  
1차 : 2018년 10월 18일 목 09:30~14:00 시민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2차 : 2018년 10월 19일 금 09:30~17:00 대학생 제주 건축 답사  
3차 : 2018년 10월 20일 토 09:30~14:00 시민 제주 근·현대 건축 답사

주제 : 제주도립미술관 출판 → 1~3차 코스  
총괄해설사 : 김태일(제주대학교 건축학전공 교수) / 보조 :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해설사 참가신청(2차, 4차 시민 건축답사 신청) : 제주도립미술관 사전전화접수(신청은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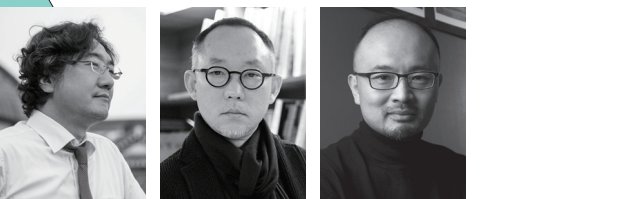
건축영화제

일시 : 2018년 10월 18일(목)~19일(금) 오후 2시 ~ 6시  
장소 : 제주도립미술관 강당  
상영작 : 1. 에로 사리넨:미래를 짓다 / Director 피터 로젠  
2. 게임으로 도시 바꾸기 / Director 안테르스 예를룬드

2018 건축토크소 : 제주에서의 건축작업, 무엇을 남겼는가?

제주에 거주하지 않지만 제주에서의 건축작업을 통해 제주를 이해하고 있는 건축가의 시선에서 제주사회는 어디로 가야하는지, 그리고 제주의 건축은 어떻게 실현되고 구축되어 가야하는지가 주제이다. 한국의 대표하는 건축가 3인과 일반시민들과의 진솔한해서도 깊은 울림의 이야기를 통해 제주건축의 지향점을 새롭게 찾아보고자 한다.

일시 : 2018년 10월 20일(토) 오후 2시 / 장소 : 제주도립미술관 강당  
패널 : 조정주(구가 건축사무소 대표), 최욱(원오원 건축사무소 대표), 황두진(황두진건축사무소 대표)  
사회 : 정귀원(전 화이트 편집장)



다채도시:多影島市

Million Islands City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도시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 가야 할 미래의 모습은 무엇인가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15세기 후반 르네상스 시대부터 플라톤의 철학을 담은 이상적인 도시를 사회와 문화의 개혁을 통해 이루자는 주장들이 있었고, 19세기 후반에는 Ebenezer Howard의 Garden City를 통해서, 20세기에 들어서는 르코르뷔제를 비롯한 많은 건축가들이 이상적인 도시의 모습을 그려냈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영화와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미래도시의 모습을 그려낸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현대대의 이상적인 도시는 무엇인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현대대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물리적 외형의 성장에 의해 탄생한 메가시티 위주의 시스템에서 벗어나려는 탈도시화의 귀농 · 귀촌의 증가와 같은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 및 지방 도시들이 급격히 성장하여 곳곳에서 밀리언티어를 형성하며 문화, 역사, 관광에 중점을 둔 새로운 도시 모습을 꿈꾸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기존의 메가시티 위주 시스템에서 벗어나고 과포화/집중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동시에 현대대의 이상적인 도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도시의 규모가 아니라 지역적 정체성을 갖춘 도시인가 하는 점이다. 지역 주민들에 의해 인식 되어져 온 역사적인 배경과 문화를 충분히 도시환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지의 여부가 각 지역의 정체성을 보여줄 것이고 이는 곧 그 도시의 색채로 설명될 수 있다.

밀리언이라는 단어는 백만이라는 숫자들의 직접적인 의미로도 쓰이지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성공적인 혹은 만족스러운 가치를 내포하는 중의적 의미를 담은 이상향의 아이콘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밀리언달러 아이디어"라는 표현은 매우 적합한 아이디어를 의미에 빗대어 사용되기도 하고, "백만장자"라는 관용구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계층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토마스모어(ThomasMore)가 저술했던 유토피아(Utopia:그리스ou(no)topos(p lace)의 합성어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곳', 즉 이상향이라는 인간의 꿈)만 말로 그 당시의 이상적 사회를 일컬었던 것과 같이 현재의 우리 시대의 이상적인 도시의 모습을 밀리언시티라 지칭할 수 있겠다. 이렇게 독특한 색채를 가진 밀리언 시티들이 하나둘 구성이 된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다양하고 특색있는 도시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천만명 이상의 경제 규모를 갖춘 메가시티의 도시구조에서 인구수 백만명 규모의 밀리언시티로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해야할 점은 크고 작은 밀리언시티들이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색채의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그 이상인 큰 그림(big picture)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2018 대한민국 건축문화제는 우리 도시의 미래상으로 밀리언시티는 어떠한 모습이며, 어떠한 지역적 색채를 지닌 다채도시로 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공론의 장을 열려고 한다!

2018 대한민국건축문화제 조직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 강철희  
집행위원장 : 박재유 / 제주건축가회 회장 : 나경환  
건축문화제위원회 공동위원장 : 하진, 임종영  
운영위원 : 문석진, 김태원, 현군호, 고성천, 고이관, 이윤규, 강경호, 김태원, 이은종, 홍광택, 부희철, 현해경, 권정우, 김태성, 양성필, 정우성, 허동호, 강상원, 김정일, 김훈성, 박경택, 문정하, 김경수, 박승현, 고기봉, 김병수, 강병조, 김학진, 조진희 / 박옥성, 박영성, 서민우